

#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주민의식 및 공간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임승빈\*, 조순재\*\*, 박창석\*\*\*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농촌생활연구소 기획실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농촌거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약 20호의 규모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 계획농촌마을의 형성을 위한 사업방식이며, 문화마을 조성사업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단위농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공간구조 및 주민의식에 대한 평가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공간구조와 개발방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는 소규모 계획농촌마을의 개발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취락구조 개선사업(新村型)이 수행된 농촌마을의 공간구조와 주민의식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의해 형성되는 소규모 계획농촌마을의 바람직한 공간구조와 개발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및 내용

첫째, 1980년에서 1993년까지 전국 및 경기도의 취락구조 개선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1986년-1994년까지 조성된 신촌형(A형)인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사업면적, 호수밀도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러한 취락구조 개선마을(신촌형)의 호수밀도/사업면적을 문화마을과 비교하였다.

둘째, 1993년 이후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신촌형)이 시행된 농촌마을중에서 6개 사례대상 농촌마을(농국리, 외사리, 산평1리, 양촌리, 복리, 백안3리)을 선정하여 공간구조와 주민의식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자료조사와 현장조사, 설문조사 및 주민인터뷰가 이용되었으며, 특히 설문조사 및 주민인터뷰는 현장조사를 기초로하여 4개 마을(농국리, 외사리, 산평1리, 양촌리)에 대해서만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존 농촌마을과 취락구조 개선마을에서 각 거주가구의 63.2%-94.7%에 대해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전체적으로 총 거주가구의 79.5%가 설문조사되었다.

## 3. 연구결과

1) 취락구조 개선사업에서 신촌형이 1990년 이후에는 전체 사업의 47.2%(143개 마을;전국)와 68.3%(28개마을;경기도)를 각각 차지하였고,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평균 면적은 0.97ha이고 평균 호수밀도(戶/ha)는 23.4로 나타났다. 문화마을의 경우 5.6ha(평균면적)이고 23.5戶/ha(호수밀도)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락구조 개선마을(신촌형)의 경우 사업부지 면적과 호수밀도의 상관관계가  $-0.39(p<0.05)$ 로 나타나 사업부지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호수밀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공간구조는 도로패턴에 따라 순환형, 막다른 골목형, 가지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존 농촌마을의 경관적 특성과 공간구조의 유지와 도로율의 감소를 통한 사업비의 절감 등의 측면에서는 막다른 골목형이나 가지형 공간구조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신축 주택의 부속사 유형은 크게 평면배치(확장)형, 수직배치형, 혼합배치형, 부속사 미설치형, 부속사 방치/재활용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취락구조 개선마을에서 농가는 거의 대부분 부속사를 설치하였으나, 비농가/탈농가는 부속사 미설치형이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 능국리, 산평1리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농가에서는 수직배치형이 나타났고, 외사리, 양촌리, 백안3리, 북리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농가에서는 평면확장형이 주로 나타났다. 대지의 효율적 이용과 건축비 등을 고려할 때 반지하에 부속사를 배치하는 수직배치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능국리와 외사리, 산평1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기존 농촌마을과 비교하여 취락구조 개선마을에서 주택의 질, 상수도, 하수도 등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5) 농촌마을내 추가 필요시설로는 공원·체육시설이 가장 높은 요구도(68.2%)를 보여 공원·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원·체육시설은 어린이놀이터, 주민휴식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이 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오수정화시설의 지속적인 확대설치가 요구되며, 농작업관련 공동시설에 대한 요구도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6)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84%)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찬성이유로는 주택 및 주거환경개선(깨끗하고 위생적인 주거공간,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정비)이 69.3%의 응답율을 보였다.

7) 농촌주민들의 상당수(60.9%)는 기존 마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택과 도로, 상·하수도 등을 정비하는 마을 정비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마을 정비방식에 의한 농촌마을 계획/정비가 농촌주민들의 선호를 고려하고 농촌마을 공간조직 및 사회적 관계의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8) 산평1리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대지규모(평균 61.5평) 평가가 다른 취락구조 개선마을(130평-196평)에 비해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ANOVA, Duncan검증,  $P < 0.01$ ). 따라서 취락구조 개선마을 등의 계획농촌마을에서는 적어도 120평 이상의 대지규모를 확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대지규모는 기존 농촌마을의 대지규모를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